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능형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햅야 니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퍽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가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1. 위 글의 ‘강수’와 <보기>의 ‘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재 너머 권성룡 집에 술 익닷 말 어제 들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즐 타고  
아이야 네 권룡 계시나 정좌수 왔다 하여라.

- ① 본문의 ‘강수’는 실제 존재하는 술을 <보기>의 ‘술’은 상상속의 ‘술’을 의미한다.
- ② 본문의 ‘강수’는 화자가 혼자 빚은 술이고, <보기>의 ‘술’은 타인과 함께 빚은 술이다.
- ③ 본문의 ‘강수’는 현실적 삶에 대한 긍정을, <보기>의 ‘술’은 이상적 삶에 대한 추구를 의미한다.
- ④ 본문의 ‘강수’는 현실적 고통을 잊기 위한 것이고, <보기>의 ‘술’은 향촌생활의 풍류와 흥취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⑤ 본문의 ‘강수’는 삶의 비애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기>의 ‘술’은 세속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2. 위 시의 ‘새’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어가 아닌 것은?

- ① 펄펄 나는 저 피꼬리 / 암수 서로 정다운데 / 외로울사 이내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 ② 밤만도 애달픈데 / 봄만도 생각인데 // 날은 빠르다. / 봄은 간다. //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 저 바람에 새가 슬피운다.
- ③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 山 첩동새 난 이숫흐 요이다. /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라시리이다.
- ④ 방안에 헛는 촉(燭)불 놀과 이별 흐옛관대 / 것츠로 눈물디고 속타는 줄 모르논고 / 더 촉(燭)불 날과 갖트여 속타는 줄 모로도다.
- ⑤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니 /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 버렸어라. /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 날 생각하니, /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이 어렵기도 하구나.

3. 다음 중 4연에 드러난 시적화자의 처지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겨울나무와 / 바람 /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 나무도 바람도 / 혼자자가 아닌 게 된다.

- 김남조 <설일>

②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 올 때는 인적 그친 /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③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호을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겨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④ 벼는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 / 햇살 따라워질 수록 /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 이성부 <벼>

⑤ 눈은 살아 있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을 바라보며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4. 위 시가와 <보기>의 후렴구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 전기 차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이랑 배 띄워라 노다가세.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 쪽박의 신세가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이랑 배 띄워라 노다가세.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이랑 배 띄워라 노다가세.

작품	청산별곡	아리랑 타령
후렴구	알리알리 알라(랑)성 알라리 알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가세
기능	* 울림소리인 ‘ㄹ, ㄴ’을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와 운율감을 형성함. --- ㉠ * 전체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통일감을 줌. --- ㉡	*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낙천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
공통점	* 각 연을 분절하는 역할을 함. --- ㉣ * 노래의 운율을 살려 흥을 돋움.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 중 ㉠과 음악성을 형성하는 방식이 나머지와 가장 이질적인 것은?

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부리오리다.

②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아게 씻은 얼굴 고은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③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④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저즌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게가

6. 다음 중, 2연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이 아닌 것은?

- ①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② 산꿩도 슬개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 절의 마당귀에 여인이 머리 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③ 房(방) 안에 헛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헛엇관디, 것흐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논고. 우리도 더 燭(촉)불 갖흐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 ④ 뿔버들 곱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窓(창)밭기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⑤ 천만리(千萬里) 머느먼 길에 고흔 님 여희웁고 님 마음 둘 디 업셔 님가에 앉앗시니 저 물도 님 안과 갖티여 우리 밤길 옛낏다.

7. 윗글과 <보기>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리(十里)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가오.

- <길>, 김소월

- ① 윗글과 <보기>는 4음보의 율격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 ②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분절된 각 연을 통해 시상이 전환된다.
- ③ 윗글과 <보기>에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 ④ 윗글과 <보기>에서 화자의 직설적인 태도는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다.
- ⑤ 윗글과 달리 (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렴구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한다.

8. 이 시가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의 신세는 웬 말인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밭은 헐려서 신작로 되고  
집은 헐려서 정거장 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배 띄워라 노다 가세.

- ① 삶의 비애를 제재로 다루고 있다.
- ② 창작의 주체를 서민으로 볼 수 있다.
- ③ 후렴구로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비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3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9. 다음을 읽고 윗글과 형식이 같은 것을 고르면?

'진달래꽃'과 같은 현대시에서 나타나는 3음보의 율격도 한국 문학의 전통에 속한다. 한국 문학의 전통 시가(詩歌)에서 3음보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3음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작품들로 계승되면서 한국 시가 문학에서 전통적인 율격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 3음보 율격은 고려가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① 대숲으로 간다./  
대숲으로 간다./  
한사코 성근 대숲으로 간다.//  
- 신석정, '대숲에 서서'
- ② 강(江)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 '나그네'
- ③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불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꼬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④ 강산(江山) 조흔 경(景)을 힘센 이 닷톨 양이면,/  
너 힘과 너 분(分)을 어이하여 엇들쓴이./  
진실(眞實)로 금(禁)헛 리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 김천택, '강산(江山) 조흔 경(景)을 ~'

- ⑤ 비 갠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거나./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 정지상, '송인(送人)'

10. 다음 중,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나랏말쌈이 中등國국에 달아 文문字字와로 서르 스  
뭇디 아니홀씩
- ② 李니謫덕仙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廬녀  
山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허려니.
- ③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느르샤 일마다 天福(천복)이  
시니 古聖(고성)이 同符(동부)하시니
- ④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前後)에 수응(酬應)함  
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婢僕)에 지나는지라.
- 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슬흔 부모씩 받조온 거  
시라 감(敢)히 혈위 상히오디 아니홈이 효도인 비르소미  
오

**내신형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 넌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햐야 니즈란 디내와손더.  
 ㉢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녹무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 사스미 짚대에 울아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빅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가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1.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 - a - b - a'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
- ②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시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ㄹ', 'ㅇ'을 사용한 후렴구는 밝고 명랑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상징과 비유를 통해 현실의 부당함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 ⑤ 시적 정황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따라 시구의 의미가 달라진다.

2. 다음 중 윗 글의 '청산'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시어를 사용한 것은?

- ① 청산도 절노절노 綠水(녹수) | 라도 절노절노 / 산 절노 절노 수(水) 절노절노 산수간에 나도 절노절노 / 그중에 절노 자란 몸이 늙기도 절노절노 늙느니라.  
- 김인후
- ② 니뵈야 靑山(靑山)에 가자 범나브 너도 가자 /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입에서나 자고 가자.  
- 작가 미상
- ③ 靑山(靑山)은 내뜻이오. 綠水(녹수)는 님의 情(정)이 / 綠水(녹수) 흘러간들 靑山(靑山)이야 변홀손가 / 綠水(녹수)도 靑山(靑山)을 못니져 울면서 가노고.  
- 황진이
- ④ 靑山(靑山)는 어찌하여 萬古(만고)에 프르르며 / 流水(유수)는 어찌하여 晝夜(주야)에 그치지 아니노고 / 우리도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만고상청)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 ⑤ 말 없는 靑山(靑山)이요 모양 없슨 流水(유수) | 로다 / 갑  
업슨 淸風(청풍)이요 임자 업슨 明月(명월)이로다 /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걱정 업시 늙으리라.  
- 성혼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ㄹ'과 'ㅇ'이 많이 사용되어 밝은 느낌을 주는 후렴구이다.
- ② ㉡ : '너보다'라는 의미로 화자의 비애감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 : 낮에서 밤으로의 시간의 흐름은 고독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④ ㉣ : 실제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는 상황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 불가능한 상황(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

4.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실적 고통을 종교적으로 극복했다.
- ② 후렴구는 작품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
- ③ 시어의 반복을 통해 음악성을 느낄 수 있다.
- ④ 당시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 ⑤ 시구 해석에 따라 시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5. 위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고려인의 낙천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 ②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각 연마다 반복되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낸다.
- ⑤ 악기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흥을 돋우고 있다.

6.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로 3.3.2조의 음수율이 나타난다.
- ② 구전되어 전해지다가 고려시대에 문자로 기록되었다.
- ③ 화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시의 해석이 달라진다.
- ④ 고도의 상징성과 뛰어난 음악적 효과로 높은 문학성을 보여 준다.
- ⑤ 무신의 난, 외적의 침입 등 내우외환의 부정적 삶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7. 이 작품을 바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전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에서는 애달픈 배경음악을 준비하여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 좋겠어.
- ② 3연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표정 연기를 주문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③ 4연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하여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맞는 모습을 연출하여 화자의 갈등 상황을 부각시켜야겠어.
- ④ 5연에서는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촬영하여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에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야겠어.
- ⑤ 7에서는 술을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여 현실의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잊어보려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야겠어.

8. 위 작품 각 연의 중심 내용과 화자의 정서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연	중심내용	정서
①	1연	현실에서 벗어나 청산에 살고 싶은	미련
②	3연	새의 울음을 듣고 삶의 슬픔을	비애
③	5연	삶의 고통과 고독을 운명으로 여	해소
④	7연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람	절박함
⑤	8연	술이 고뇌와 번민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절망감

9.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시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유랑민의 서글픈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② 평민들 사이에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유학자들에 의해서 한글로 기록된다.
- ③ 운율은 3·3·2조 3음보로 되어 있으며, a-a-b-a 구조가 반복되어 외우기 쉽고 가락을 맞춰 노래 부르기에 좋다.
- ④ 각 연의 끝에 반복되는 후렴구는 글 내용의 비애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글에 통일성을 주고 있다.
- ⑤ 시적화자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청산'과 '바다'가 제시되어 있다.

10. '청산별곡'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경 : '살으리랏다'를 '살고 싶구나'로 해석한다면 화자는 청산을 동경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태연 : 화자는 울고 있는 새를 보며 자신도 새처럼 울고 싶다고 표현하였어.
- ③ 헤리 : '우러라'를 '노래하라'라고 해석한다면 고통을 이기려는 낙천적인 태도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
- ④ 소유 : '가던 새'를 '갈던 사래'로 본다면 옛 생활에 대한 미련으로 해석할 수 있어.
- ⑤ 은지 : 후렴구는 아무런 뜻이 없이 악률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경쾌한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어.

11.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의 '우러라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는 대상으로, 화자처럼 시름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한다.
  - ② 3연의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본다면, 화자는 자신이 농사짓던 공간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5연의 '돌'은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유도 모르고 맞은 것으로 화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 ④ 6연의 '구조개'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으로, 속세를 떠난 화자의 삶에 위안을 주고 있다.
  - 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는 후렴구로서 연을 구분해 주면서도 노래 전체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2. 다음 시어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산 : 화자가 소망하는 공간
- ② 새 :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
- ③ 밤 :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
- ④ 돌 :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인간의 숙명적인 삶
- ⑤ 강수 : 화자가 떨쳐 버리지 못하는 속세에 대한 미련

13. 윗글에서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시어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청산별곡은 걸핏하면 전쟁과 내란에 희생되고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면서 노동과 천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민중들이 차라리 자연 속에 들어가 ㉠ 은둔하며 살면서 삶의 고통과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또한 ㉡ 현실의 삶에 대한 미련마저 벗어 던지지 못하는 당시 민중들의 복잡한 심정을 유려한 울격에 맞춰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 |        |      |
|--------|------|
| (a)    | (b)  |
| ① 돌    | 조롱곳  |
| ② 청산   | 가던 새 |
| ③ 가던 새 | 강수   |
| ④ 청산   | 돌    |
| ⑤ 강수   | 가던 새 |

14. <보기>의 ㉠의 관점에서 위 작품의 3연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청산별곡'은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서경별곡'과 함께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화자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여 작품에 대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 무신들의 횡포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살아갈 터전을 상실한 채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의 괴로운 삶을 표현한 노래이다.

㉡ 실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속세를 떠나 살고자 하는 여인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이다.

㉢ 무신들의 횡포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을 찾아 위안을 찾으며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지식인의 노래이다.

- ① '가던 새'는 ㉠과 함께 화자를 위로해 주는 존재이다.
- ② 이별의 슬픔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온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③ 화자는 오랜 시간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생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 ④ 속세를 떠나 자신의 삶에 안정을 찾고, 세상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화자는 이끼 묻은 쟁기를 보며, 외세의 침략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후회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하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되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져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얼리랏다. ㉞ 바라래 살어리랏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라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슴이 짐대에 올라서 ㉟ 해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배브른 도끼 ㊱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매와 잡사와니 내 엇디 하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15. 이 시가의 갈래적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부분의 작품에 후렴구가 있어 음악성을 더한다.
- ② 후렴구를 제외하면 대개 3음보 형식을 이루고 있다.
- ③ 대체로 몇 개의 연이 연속적으로 구성된 분절체이다.
- ④ 당시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과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오랫동안 입으로만 전해지다가 고려 시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되었다.

16. 이 시가의 화자에 대해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삶의 거처를 빼앗긴 유랑민으로 볼 수 있다.
- ② 속세의 번뇌를 잊기 위한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 ③ 전란의 피해를 입고 떠돌던 피란민으로 볼 수 있다.
- ④ 풍류를 통해 현실의 불만족을 해소하려는 귀족 계층으로 볼 수 있다.
- ⑤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여인으로 볼 수 있다.

17. 이 시가를 내용상 '청산'과 '바다'로 구분할 경우 대응되는 연과 공통점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대응되는 연	형식상 공통점
① 1연 - 5연	평서형 어미 → 현실에 대한 만족 표현
② 1연 - 6연	유사한 의미의 시어 → 현실 도피적 태도
③ 2연 - 5연	상황의 대비를 통한 반복 → 비애의 정서 표현
④ 3연 - 7연	의문형 어미 → 현실에 대한 미련 표현
⑤ 4연 - 8연	평서형 어미 → 체념이 담긴 정서 표현

18. 이 시가를 <보기>의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현실을 살고 있는 작가에 의해 창작된 작품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대의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을 해석할 때는 먼저 작품이 쓰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 ① 뛰어난 기교와 상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식인의 창작품으로 볼 수 있다.
- ② 이 시가의 화자가 삶의 고통을 술로 달래려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이상향을 동경하는 화자의 정서는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 통하기 때문에 큰 공감을 주고 있다.
- ④ 이 시가의 창작 시기를 고려했을 때 당시 사회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삶의 비애가 느껴지지만 경쾌한 분위기의 후렴구를 사용하여 낙천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19. 이 시가의 다양한 해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의 '우러라'는 화자의 어조에 따라 감탄 또는 명령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3연의 '장글'은 화자를 '유랑 농민', '실연한 여인', '좌절한 지식인' 등으로 해석하기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어.
- ③ 5연의 '미리도 괴리도'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괴롭힐 사람도'의 의미로 볼 수 있어.
- ④ 7연의 '사스미'가 '사슴'이라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만큼 화자가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8연의 '내 엇디 흐리잇고.'에서 '내'는 술을 마시며 현실에 체념하는 화자이거나, 술을 마시는 입에 대해 체념하는 여성으로 볼 수 있어.

20. 이 시가의 화자가 2연의 '새'를 통해 느끼는 심정을 한자 성어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 ② 상전벽해(桑田碧海)
-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 ⑤ 맥수지탄(麥秀之嘆)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울림소리인 ‘ㄹ, ㅍ’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의미 없는 구절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낙천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다.
- ③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어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있다.
- ④ 밝고 경쾌한 리듬을 통해 흥을 돋우는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표현이다.
- ⑤ 조음구 또는 조흥구라고도 불리는 표현으로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속세를 벗어난 이상적 공간을 의미한다.
- ② ㉢ : 이상향과 대비되는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 ③ ㉣ : 낮과 대비되는 시간적 배경으로,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한다.
- ④ ㉤ :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드러난다.
- ⑤ ㉥ : 화자의 고뇌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해 주는 수단이다.

23. 이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구의 반복으로 음악성을 획득하고 있다.
- ② 화자의 현실 도피적인 인생관이 드러나 있다.
- ③ 1~4연과 5~6연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 ④ 화자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시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⑤ ‘a-a-b-a’의 구조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24. 이 시가의 각 연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 청산에서 살고 싶어 함
- ② 2연 : 새의 울음을 듣고 삶의 비애와 고독을 느낌
- ③ 4연 : 낮을 지나 밤이 오면 더욱 외로움을 느낌
- ④ 5연 : 삶의 고통과 고독을 운명으로 여기고 체념함
- ⑤ 8연 : 술과 함께 살아가는 낙천적 생활에 대해 동경함

25. 이 시가에 나타나는 ‘청산’과 ‘바다’의 공간적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청산(靑山)’은 ‘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을 의미하고, ‘바다’는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외한 부분으로 짙물이 괴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청산’과 ‘바다’는 ①실존하는 자연의 공간인 동시에, ②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결국 이 작품 속의 ③화자는 매우 힘들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④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상적인 공간으로 설정한 ⑤‘청산’과 ‘바다’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살어리랏다’의 반복은 ㉦를 향한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늑막자기 구조개’는 ㉦가 지닌 특성과 관련되는 시어이다.
- ③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해금을 타는 것은 ㉦에 대한 지향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상상일 수 있다.
- ④ ‘빅브른’에는 ㉦가 풍족함을 지니고 있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⑤ ‘내 엇디 흐리잇고’는 ㉦에 대한 지향을 멈추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용설명서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애 살어리랏다.  
 멀위랑 ㄷ래랑 먹고 청산애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ㄷ링공 ㅎ야 니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ㄴㅁ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빙브른 도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밭와 잡스와니 내 엇디 ㅎ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가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1.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청산별곡'은 대칭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연과 6연, 2연과 5연, 3연과 7연, 4연과 8연이 대응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노래가 구비 전승되는 과정 또는 기록되는 과정에서 5연과 6연의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처럼 5연과 6연을 바꾸어 놓으면 ( ㉠ )~( ㉡ )연은 ( ㉢ ) 노래, ( ㉣ )~( ㉤ )연은 ( ㉥ ) 노래로 구분되어 대칭구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1 | 4 | 바다 | 5 | 8 | 청산 |
| ② | 1 | 5 | 삶  | 6 | 8 | 바다 |
| ③ | 1 | 6 | 청산 | 7 | 8 | 삶  |
| ④ | 1 | 5 | 고뇌 | 6 | 8 | 비에 |
| ⑤ | 1 | 4 | 청산 | 5 | 8 | 바다 |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청산별곡'은 두드러진 운율적 효과와 정제된 형식미, 고도의 상징성 등이 돋보이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떤 부분에서 형식미와 문학성을 지니는지 발표해볼까요?

- ① 혜진: 분연체로 각 연마다 후렴구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고도로 정제된 형식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 ② 성주: 시적 화자의 비애와 같은 정서를 '새'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전달하고 있는 점에서 문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③ 송이: 3·3·2조의 3음보 율격, 'a-a-b-a' 구조 등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살린 점에서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 ④ 예지: '이상향', '도피처' 등의 의미를 가진 '청산'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이 작품의 문학성을 알 수 있습니다.
- ⑤ 슬기: '바룰'과 같은 상징적 시어를 통해 고도의 상징성이 돋보이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윗글의 화자를 유량민으로 볼 경우 ㉠,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 가던 새(鳥)
- ② ㉠: 가는 사이에
- ③ ㉡: 날이 무던 병기
- ④ ㉡: 이끼 묻은 쟁기
- ⑤ ㉡: 이끼 묻은 은장도

4.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리: 이 작품의 시적 화자가 실연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별한 상황에서 그 슬픔을 나타낸 노래라고 볼 수 있어.
- ② 서준: 맞아. 이 작품의 시적화자는 실연한 사람 또는 유량민이야. 시적 화자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데 이

작품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③ 미향: 시적 화자를 달리 하면 시구의 의미도 달라짐을 알 수 있어.

④ 수임: 맞아 해석이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구절이 여러 개 나타나서 단일한 해석으로만 작품을 이해하면 안 돼.

⑤ 예서: 맞아 그래서 나는 '사스미 짬뽕에 올라서 희금을 허거를 드로라.'를 두 가지 의미로 했어.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울림소리를 사용한 후렴구는 경쾌한 느낌을 준다.

② '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며, '돌'은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대상이다.

③ '멀위', '다래', '늑막자기', '구조개'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한다.

④ '마자셔 우니노라', '내 엇디 흐리잇고'에서 화자의 체념적 심정이 나타난다.

⑤ '설진 강수'는 독한 술이라는 뜻으로 현실의 괴로움을 야기하는 대상이다.

# 정답 및 해설

## 수능형

### 1. <답> ④

청산별곡에서 '강수'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이며, <보기>에서는 향촌생활의 풍류와 흥취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 2. <답> ①

청산별곡에서 '새'는 화자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하지만 ①의 '끼꼬리'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다.

### 3. <답> ③

4연에서는 화자의 고독과 비탄이 주된 정서이므로 선지 ③번의 화자의 가을에 느끼는 고독함과 가장 어울린다.

### 4. <답> ③

아리랑 타령에서 후렴구가 낙천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5. <답> ①

윗글은 a-a-b-a 구조의 율격이 사용되었다. ①은 7.5조 3음보의 율격이 사용되고 있으나 a-a-b-a 구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 6. <답> ④

2연에서는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 ④는 뭇버들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되었다. ①사슴의 무리 ②산꿩 ③축불 ⑤물에서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

### 7. <답> ④

윗글의 4연과 <보기>의 3연에서 화자는 직설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다. ①윗글과 <보기>는 모두 3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②윗글과 <보기> 모두 분절된 연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각 연을 통해 시상이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③윗글에서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나, <보기>의 '까마귀'는 화자를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므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⑤윗글의 반복적인 후렴구는 화자의 심정과 대조적으로 밝고 경쾌하다.

### 8. <답> ④

이 시가에는 화자가 고뇌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보기>에는 밭과 집이 헐려서 고통스럽다는 비애의 원인이 드러나 있다.

### 9. <답> ②

7·5조의 3음보 율격이 드러나므로 고려가요와 같은 전통적인 율격이라고 볼 수 있다.

### 10. <답> ⑤

㉠은 '너보다'라는 뜻으로, '라와'는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이다. ⑤의 '효도익'은 '효도의'로 해석되며 '익'은 관형격 조사이다.

① '中庭國국에'는 '중국과', ② '여기도곤'은 '여기보다', ③ '古聖(고성)이'는 '고성과', ④ '자식에게'는 '자식보다'라는 뜻이다. ①의 '에', ②의 '도곤', ③의 '이', ④의 '에게'는 모두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이다.

## 내신형

### 1. <답> ④

부정적 상황에서 힘들어하며 이상향으로의 도피를 꿈꾸고 있을 뿐, 현실에 대한 풍자성은 찾아볼 수 없다.

### 2. <답> ②

'청산'은 내가 가고자하는 곳, 지향하는 곳이므로 이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역시 청산에 가기를 소망하므로 이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답> ④

시적 화자는 현재 돌에 맞아서 울고 있는데, 이 돌은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 던진 돌이 아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4. <답> ①

이 시에는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다. 현실적 고통을 피해 이상향(청산, 바다)으로 도피하고자 하나 솔로써 달래고 있을 뿐이다.

### 5. <답> ③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작품의 내용과 이질적이다.

### 6. <답> ②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은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기록되었다.

7. <답> ③

5연의 '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 화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이지, 실제 두 인물이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니다.

8. <답> ④

7연에서는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9. <답> ④

청산별곡의 후렴구는 작품 전체 내용과 이질적이다.

10. <답> ②

화자는 울고 있는 새를 보며 새보다 시름이 많은 자신도 울고 있다고 했으므로 '울고 싶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1. <답> ④

'구조개'는 1연의 '멀위랑 드래'와 같은 자연 속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을 의미한다. 화자의 삶에 위안을 준다고 해석할 만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12. <답> ⑤

'강수'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13. <답> ②

'청산'과 '바다'는 괴로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이상세계, 은둔처 등을 의미하며 '가던 새'는 '갈던 발'으로 해석할 경우 현실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14. <답> ③

화자를 농민으로 볼 경우 3연의 '가던 새'를 '갈던 발'으로 해석하여 생업의 공간과 숙세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15. <답> ⑤

고려가요는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조선 시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되었다.

16. <답> ④

이 시가는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시구의 의미와 시적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현실적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품의 정서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가의 화자는 유랑민, 지식인, 피란민, 실연한 여인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려 가요의 주된 작자층은 평민들이므로 풍류를 통해 불만족으로 해소하려는 귀족 계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답> ③

이 시가는 1~4연을 '청산'의 노래, 5~8연을 '바다'의 노래로 해석하는 대칭 구조로 볼 수 있다. 즉, 1연과 6연, 2연과 5연, 3연과 7연, 4연과 8연이 서로 대칭되어 있다. 이때 1연의 '청산'과 6연의 '바다'는 모두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설정한 이상향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도피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18. <답> ④

<보기>는 작품이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인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이 시가의 내용을 창작 시기와 연관 지어 감상한 ④가 가장 적절하다.

19. <답> ③

5연의 '미리도 괴리도'에서 '괴다'는 '사랑하다'의 의미만 있으므로 전자의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20. <답> ①

화자는 '새'가 우는 것을 보며 비애와 고독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다. 즉, 화자는 '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의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다.

21. <답> ④

㉠은 이 시가의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화자는 괴로운 현실 때문에 비애에 젖어 있는 반면, 후렴구는 울림소리인 'ㄹ, ㅇ'음의 반복으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러므로 후렴구의 정서는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22. <답> ④

㉡의 '해금'은 사슴이 연주하는 악기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음악을 통해 생의 괴로움을 잊기를 바라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된 표현이다. 이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23. <답> ③

이 시가의 1~4연과 5~6연이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5연과 6연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24. <답> ⑤

8연에서 화자는 독한 술을 통해 고달픈 삶의 현실에서 느껴지는 고뇌와 번민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낙천적 생활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25. <답> ①

이 시가에서 '청산'과 '바다'는 사전적인 의미와 같은 실존하는 자연적인 공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괴로움을 겪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26. <답> ④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이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비브른'은 술을 담고 있는 항아리의 외형적 모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시어일 뿐, 이를 통해 풍족함을 기대하는 화자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살어리랏다'를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바다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크다는 것을 드러낸다. ② '늑머자기 구조개'는 바다에서 나는 대표적인 생산물이므로, 이는 바다가 지닌 특성과 관련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③ '사스미'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즉 기적에 해당한다. 이런 기적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를 상상하는 것은 화자가 현재 현실의 고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⑤ '내 엇디 흐리잇고'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사용설명서 변형문제

1. <답> ⑤

1연과 6연(청산-바다), 2연과 5연(자고 니러 우니로라-마자셔 우니노라: 삶의 비애), 3연과 7연(가던 새 본다-에정지 가다가 드로라), 4연과 8연(엇디 호리라-엇디 흐리잇고)이 대응되는 관계이다. 5연과 6연을 바꾸어 놓으면 1~4연은 청산 노래, 5~8연은 바다 노래로 구분할 수 있다.

2. <답> ③

3·3·2조의 3음보 율격, 'a-a-b-a' 구조 등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살린 점에서 이 작품이 고도로 정제된 형식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답> ④

화자를 유랑민으로 볼 경우 '가던 새'는 '갈던 사래(밭고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잉 무든 장글'은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될 수 있다.

4. <답> ②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실연한 사람, 유랑민, 속세를 떠난 은자 또는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화자가 실연한 사람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사별한 상황에서 그 슬픔을 나타낸 노래이며, 화자가 유랑민일 때는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지배층의 착취로 토지를 빼앗기고 떠도는 유랑민들의 고통과 비애를 읊은 노래이며, 화자가 속세를 떠난 은자 또는 지식인일 때는 권력의 횡포나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해 속세에 염증을 느끼고 숨어 사는 은자의 인생관을 노래한 작품이다.

5. <답> ⑤

'설진 강수'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매개체이다.